

「지방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세미나」개최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는 지방도시의 재생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제세미나 및 현지답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는 영국의 어반플라즈마 양도식 박사가 "영국지방도시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버밍햄시, 브리스톨시, 맨체스터시 살포드 등의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재생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단계적 유동적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정부 및 지자체의 명확한 비전 제시와 리더십,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일본 오카야마대학의 김두철 교수는 일본 나고야시 오조네 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 간, 지구단위 간 합의 형성과 주변 시가지 정비와 함께 지역 전체의 일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례로 아산시의 '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지구', 군산시의 '구도심 및 내항일원 활성화계획', 마산시의 '오동동시장 및 마산시 도시재생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날 토론에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임서환 전 도시재생사업단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수, 김혜천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황희연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정철모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모색하였다. 논의 결과 도시재생의 일반화된 모델은 없으며 지역의 역사성, 사회성, 경제성을 반영시켜 지역에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19일에는 오전에는 아산시 '온양중심상권축진지구'의 낙후된 주거지역과 상설시장 등을 답사한 후 아산시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산시의 단계적 장기적 개발전략과 마스터플랜을 강조하였으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회복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의 선투자를 통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고, 관광휴양기능에 해외사업을 접목 및 아산 신도심 및 주변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발전을 꾀하며, 주민참여와 도시전체를 포괄하는 방안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천안시와 경쟁 또는 상생관계를 고려한 전략 및 광역적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후에는 군산시 '구도심과 내항일원'의 군산역, 근대역사건축물(구 조선은행, 세관 등) 등을 조사한 후 군산시청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수변공간과 배후지의 연계성, 근대역사유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군산시의 근대역사건축물, 철도를 큰 자산으로 하여 경쟁력 고취,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중국과의 연계방안과 철새를 활용한 아이디어,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역할 분담, 랜드마크, 특성화된 대학, 교통 등을 고려한 광역적 도시계획 추진, 성장단계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계획,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향후에도 도시재생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그리고, 역사적 건축물 및 잠재력, 주민참여를 유도한 마스터플랜과 세부계획의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20일에는 마산시의 산업단지 일원 및 구도심지역, 오동동 시장 골목의 공공미술 등을 현장답

사하고 시청으로 이동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수변공간을 활용한 전략에 대해 볼티모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언, 로봇랜드가 성장동력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마산시의 민관협의회의 역할 강조, 오동동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를 타 지역까지 확대, 민관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협의회의 역할,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마산시의 대응 그리고 마산시가 가지고 있는 워터프론트를 통한 문화 창조 가능성과 도시재생은 주체(민관협력), 시간(장기적 플랜), 창의성(도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